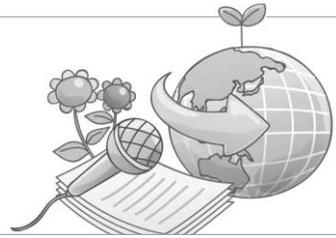




# 지구촌 양계뉴스



## 한국

닭 · 오리 5만여마리 밀도살 일당 검거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 17일 밀도살한 오리와 닭 수만마리를 도심 재래시장 등에 공급해온 양계업자 김모씨(51) 등 일당 7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밀도살 현장에 있던 도축된 닭과 오리 117마리와 거래장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은 2006년 1월 전남 담양군 모 양계장 한켠에 49.5㎡ 크기의 무허가 도축장을 마련한 뒤 최근까지 오리와 닭 5만4,000마리를 불법도축해 광주지역 재래시장과 일반 식당 7곳에 공급해온 혐의다.

경찰은 재래시장 잠복근무를 통해 운반책을 검거한 뒤 도축현장을 역추적해 밀도살업자와 판매책 등을 모두 검거했다.

- 광주=뉴시스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 약가 20% 인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약값이 20%이상 내린다.

한국로슈는 지난 1월 25일 “새해 들어 타미

플루의 약가를 75mg 1캡슐당 4,109원에서 3,197원으로 22.2%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 인플루엔자 환자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1만2,300원에서 9,50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약가 인하조치는 당초 비급여인 약가를 1~9세 이하 소아와 65세 이상 노인환자 등 면역력이 떨어진 고위험군에 한해 급여를 적용기로 하면서 시행됐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한 기간이거나, 계절성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경우로 급여가 제안된다.

경구제인 타미플루는 증상이 발생한 뒤 48시간 안에 복용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일 동안 하루에 1캡슐씩 2회에 걸쳐 복용한다.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닭 · 돼지공장 현지 지도

북한 ‘로동신문’은 지난 1월 26일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계닭공장과 강계돼지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계닭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이 강계닭공장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건설됐으며, 그 간 생산을 부단히 늘려 도내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신문은 김 국방위원장이 이 공장을 2001년 12월에 찾았었는데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고기와 알생산을 체계적으로 높였으며, 능력확장공사를 비롯해 공장을 꾸리는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알렸다.

신문은 김 국방위원장이 “강계닭공장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고 하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생산장성의 예비는 과학기술 발전에 있다고 하면서 공장에서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받들고 가금업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에서 새로 건설한 강계돼지공장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이 강계돼지공장은 “연건축면적 1만6,000여㎡에 달하는 현대적 설비들로 장비된 축산기지”라고 밝혔다.

신문은 최근에 건설된 이들 닭공장, 돼지공장들과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설계되고 건설됐으며, 공고한 사료원천에 의거한 실용성있는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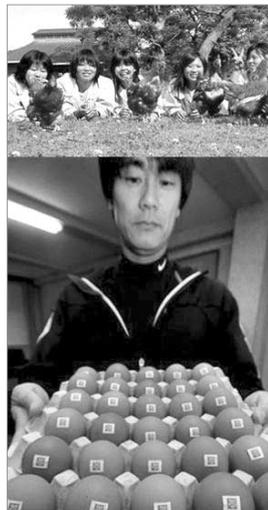
나라의 축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신문은 김 국방위원장이 “자강도의 여러 곳에 건설된 축산기지들의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됨으로써 그 덕을 크게 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미 건설된 닭공장, 오리공장, 돼지공장, 토끼목장들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도내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통일뉴스

## 일본

고등학생들이 만든 ‘항알레르기 달걀’ 인기



최근 일본에서는 평범한 한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항알레르기 달걀’을 개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화제다.

지난해 효고(兵庫)현 하리마(立播磨)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은 달걀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이른바 ‘하리마 꿈 달걀’(ハリマ夢たまご)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성분



을 연구해 닭 모이에 첨가함으로써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달걀·메추리알 등을 보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모이에는 낫토(納豆·한국의 청국장과 비슷한 발효식품)·콩비지·차조기(풀의 일종)·어분(생선에서 짠 기름을 말려서 만든 가루) 등 다양한 재료가 혼합돼 있다.

이 모이를 먹은 닭은 알레르기 억제에 뛰어난 불포화지방산 ‘ $\alpha$ -리놀렌산’이 약 5배정도 많이 함유된 달걀을 낳았으며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DHA나 EPA도 포함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이 달걀을 근처 주민들에게 시범적으로 판매한 뒤 큰 호응을 얻으면서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 제품평이 입소문으로 퍼지게 되면서 지난해 말 오사카의 한 신(阪神)백화점에서도 판매돼 출하 즉시 품절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 학교의 아카누마 코이치(赤沼幸一·37)교사는 “달걀 알레르기 손자가 있는 부부에게서 감사 편지를 받는 등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있다”며 “갈수록 양계업계 상황이 나빠지고 있지만 이 연구결과가 학생들과 업계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 미국

대두 선물시세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의 대두 선물시

세가 세계적 수요폭박 전망이 한층 강한 가운데 7월물이 전일대비 0.20달러 높은 1부셸(약 27kg)당 12.92달러로 상승, 구 소련의 대량매입의 계기로 시세가 폭등한 1973년 6월의 12.90달러를 상회해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생산이 급증한 에탄올 원료인 옥수수의 작부면적이 급격히 확대된 결과 대두의 면적이 대폭 감소했다.

대두시세는 작년 여름 이후 꾸준한 상승이 이어졌다. 더욱이 연초 이후에도 대형금융기관이 시세수준의 예상 인상과 원유 가격이 1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해 펀드 자금의 상품시장에의 유입이 한층 활발화되어 대두시세를 끌어올렸다.

- AS

## 이란

대규모 A형 발병 뒤늦게 확인

최근 이란의 닭 방목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지난해 12월 10일 이란 카스피해 연안의 마잔다란 지방에서 방목되던 닭들이 치명적인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지난 1월 17일 밝혔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을 겸하고 있는

WOAH는 이번 사태로 닭 475마리가 죽었으며 14마리가 감염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OIE는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향후 전염 사태 확대를 막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 메디컬투데이

## 태국

10개월 만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태국에서 10개월 만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나콘 사완주(州)에서 최근 400마리의 닭들이 갑자기 죽어 혈청검사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H5N1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정부 당국이 지난 1월 24일 밝혔다. 태국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작년 3월 이후 10개월만이다.

정부 당국은 AI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금류의 이동을 막는 한편 닭과 오리 5만마리를 살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방콕=연합뉴스

## 터키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확인

터키 북부에서 폐사한 닭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농업 당국이 지난 1월 21일 밝혔다.

농업부는 종굴다크주 사즈 마을에서 폐사한 닭들이 발견돼 샘플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을 나타내 정밀 검사를 추가로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농업부는 폐사한 닭들이 고병원성 H5N1형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었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업부는 AI 확산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H5N1형 바이러스가 쉽게 인체 간 감염을 일으키는 변종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AI 환자는 감염된 조류와 직접 접촉한 뒤 병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 앙카라=AP/뉴스시

## 인도

살처분 지연으로 동부지역으로 AI 확산

주민들의 가금 살처분 지연 및 방역의식 부족으로 치명적인 AI가 인도의 동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인도 방역당국이 지난 1월



21일 언급했다.

West Bengal(서벵골주)의 Bankura지역에서 고병원성 AI로 폐사한 가금이 발견되었고 약 2,000만명이 AI로 감염된 지역에 거주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다.

Sanchita Bakshi주 방역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AI의 전파를 막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0일 가금 살처분이 여러 지역에서 중단되었고 불과 125,000마리만이 지난 한 주 살처분됐다. 아직도 많은 농가에서는 방역당국의 주의를 무시하고 폐사된 가금을 호수나 연못 등에 버리고 있다.

- 로이터

### 주민들 AI로 인한 닭·오리 살처분에 반대



인도 동부 AI 발생지역의 주민들이 살처분하기 위해 닭과 오리를 넘겨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수의업무수행자들은 엄격한 위생지침을 지키도록 마을 주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우며, 주민들이 닭과 오리를 풀어놓아서 수의업무수행자들이 이들을 잡아서 살처분하기 힘든 실정이다.

지난 1월 16일 정부관리는 400,000수의 조류를 살처분하는데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다음날 단지 몇 천마리만 살처분됐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지난 1월 17일 AI 발생에도 인도 실리구리에서는 상인들이 길가에서 닭을 팔고 있다고 전했다.

- 로이터

### 방글라데시

#### AI로 가금류 살처분

방글라데시는 세 개의 농장에서 AI로 확진된 약 25,000수의 가금을 살처분했다고 전했다.

AI는 남부 해안 지역인 Borguna, 북서부 Rajshahi, 수도에서 275km 떨어진 Jessore 지역에 확산됐다.

H5N1 바이러스는 작년 3월 수도 근처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64개 지역중 25개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300,000수 이상의 닭이 살처분됐다. 🇬🇧

- 로이터